



2006년도 제3차 이사회

# 제과기능장협회 사단법인화 쟁점

지난 4월 27일 대전에서 긴급으로 개최된 2006년도 제3차 이사회는 한국제과기능장협회의 오는 6월 사단법인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번 사안이 전체 베이커리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글과 사진 김미선 기자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회장 김영모)는 지난 4월 27일 대전 유성로얄호텔 세미나실에서 2006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정족수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긴급으로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조병천 수석 부회장, 박찬희·유현식·주재근 부회장 등 (사)대한제과협회 회장단과 중앙회 이사들이 참석해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유현식)의 사단법인화 계획을 둘러싼 이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이번 사안이 전체 베이커리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중앙회 김영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과기능장협회가 사단법인이 되면 베이커리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2곳으로 분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금껏 업계를 대표해온 단체로서 이번 문제에 대해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사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업계 전체의 고른 발전과 성장을 고려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이사회 개최의 뜻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이사들이 오랜 불경기로 그 어느 때보다 업계의 단결된 힘이 중요한 때 결국 제과인을 둘로 쪼개는 결과를 낳아 전체 제과업계의 대외 영향력 및 신인도마저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업계 전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한국제과기능장협회의 사단법인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중앙회 유현식 부회장은 이번 사단법인화에 목적과 추진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하면서 “업계의 우려처럼 제과인의 분열을 초래하거나 (사)대한제과협회 회원의 권익을 깎아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사)대한제과협회 조병천 수석 부회장은 두 단체가 추진하는 기술발전 사업에 서로 겹치는 요소가 많다는 판단아래 협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기술발전 사업을 제과한국제과기능장협회가 도맡고 협회는 대정부 건의 등의 회원권의 사업에만 치중하는 ‘역할 분담론’을 내놓았다. ☞

## 제3회 이사회 주요안건

### 제과기능장협회 설립에 관한 건

한국제과기능장협회가 지난 1월 18일 제13차 이사회를 통해 다음 정기총회에서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이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사)대한제과협회 이사회는 같은 업계 안에서 둘로 나뉘어 서로 결집력이 약화됨으로써 협회의 대외 영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한국제과기능장협회에 (사)대한제과협회와의 알맞은 역할 분담을 요청했다.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5월 1일 열린 원로회의에서 기능장협회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고 제과업계 원로들의 설립 반대 의견을 수령하기도 했다. 오는 6월 3일에는 업계원로, (사)대한제과협회 회장단과 이사, 지회·지부장과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이사진이 한자리에 모여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